

극단 '논다' 광주서 한 달 장기 공연 도전

광주 지역 연극관에서 한 작품이 한달 이상 장기 공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된 화제작들이 한달 넘게 관객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역 극단의 작품들은 몇 차례 공연되고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그나마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선정 극단들이 장기 공연을 진행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트컴퍼니원이 유스케어문화관 동산아트홀고 손잡고 공연 중인 '장자의 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원금 없이 자체 제작 비용만으로 한달 이상 장기 공연 시스템을 갖추는 건 어렵다. 지역 극단 '논다'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최소 4주에서 최대 2달까지 장기 공연의 가능성을 타진 해볼 생각이다.

'논다'는 지난 2011년 극단 '기본좋은 극장'으로 첫 출발을 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공연장 '충장로 기본좋은 극장'과 함께 '바람난 삼대', '허니허니' 등을 서울 팀과 공동 제작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작품 제작을 위해 단원도 보강한 '논다'는 '사춘기 메들리' 등 워크숍 공연을 진행해왔다. 또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 폭력 방지 뮤지컬 '보이지 않는 얼굴'을 초·중·고 20개 학교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았다.

극단 '논다'는 올해 충장로아트홀로 이름을 바꾼 충장로 기본좋은 극장을 거점으로 장기 공연작을 선보인다. 첫 작품은 지난 12일 시작해 오는 4월 12일까지(매일 오후 8시, 토 4시·7시, 일 4시)까지 공연되는 코믹 연극 '웃픈 수다'(웃기고 슬픈 수다)

닐 사이먼의 희곡 '굿닥터'를 각색한 '웃픈 수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의 4가지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묶은

'웃픈수다' 4월 12일까지 충장아트홀 공연

지원금 없이 자체 제작 비용으로 가능성 타진

차기작은 뮤지컬 '소원을 말해봐' 구상 중

작품이다. 19세기말 러시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원작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각색, 웃음과 따뜻한 감성으로 각색했다.

'재채기'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 주인공이다. 뮤지컬 관람 중 시장의 머리에 재채기를 하고 만 그가 실수를 만회하려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디션'은 버스타고 잘 다니지 않는 오지에 살고 있는 촌뜨기 수수의 오디션 도전기다. '갑탈'은 희대의 카사노바 병원이 여자의 남편을 이용해 여자들을 꺾어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마지막 작품 '생일 선물'은 20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을 진정한 사나이로 만들어 주고 싶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강용복, 김장훈, 성민범, 김선영, 권찬미, 김강철씨가 연출하며 장세운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차기작으로는 뮤지컬 '소원을 말해봐'를 구상중이다. 특히 오랫동안 극단과 협업 체계를 유지해온 서울 극단 '차이무'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강용복 제작 감독은 "2년간 공동 제작을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공연을 올릴 경우 한달 이상 장기 공연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작비나 운영비의 부담을 줄일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충장로 아트홀을 거점으로 지역 극단도 작품이 좋으면 장기 공연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 5000원. 문의 062-222-09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웃픈수다'

김영호·강예원·심형탁·금단비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 활동

영화배우 김영호, 강예원 등이 제15회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사)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올해 광주국제영화제를 홍보할 'Peace Friends'로 홍보위원장에 배우 김영호, 홍보대사에 배우 심형탁, 강예원, 금단비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김영호는 뮤지컬 '명성황후', '아가씨와 건달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영화 '태양은 없다'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신징개업', '유령' 등에 출연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강예원은 영화 '하모니', '퀵', '조선미녀삼총사' 등에 출연했다.

제15회 광주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빛, 평화(Peace, Light of Asia)'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는 총 25개국 110여 편의 영화가 월드비전, 패밀리 시네마, 휴머니티비전, 힐링 시네마 특별



김영호

강예원

전, GIFF 초이스 등 총 10여개의 색선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특별상영전으로는 중국대륙의 최근 우수작품을 선별해 구성된 '중국영화특별전(시네마실크로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고, 부대행사로는 한중간 영상산업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한중영화포럼'이 3회째를 맞이한다. 또 지난해 신설된 '아시아청년영화상'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편 광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5일까지 3기 서포터즈와 기프티밀리(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요 국악한마당 '프로젝트 앙상블 련' 공연

1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가 운영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일한마당'이 '프로젝트 앙상블 련'을 초대해 공연을 갖는다. 19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2012년 창단한 '련'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젊은 연주자들이 뭉쳐 다양한 연주회를 열고 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목련(目聯)'이다. 레퍼토리는 남도 지방의 전통 민요를 탕고 선율과 접목한 '새타령', 피아노와 아쟁이 어우러진 '살풀이', 잊혀진 상여 소

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여', 빠른 템포와 남도적인 선율로 산 사람의 평안과 안녕,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불러주는 '중천' 등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연주한다. 육중도에 갇힌 춘향이 꿈에서 이도령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호접몽', 꿈에서 깬 춘향이 울며 부르는 '그리워할 련' 등이다.

마지막곡 '련'은 '경기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을 바탕으로 재즈적 느낌을 가미한 곡이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총회장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제9대 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 제기된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 나섰던 임관표 후보가 "최규철 후보가 회장후보로 한국예총 규정과 선관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낸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에 위반해 선거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한국예총이 지난달 24일 최규철 회장에 내렸던 당선 보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임 후보가 낸 당선무효청구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찰스 디킨스 소설 '위대한 유산'

'영국 버전' 연극으로 관람 기회

메가박스 광주점 주 2회 상영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을 연극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메가박스 광주점은 매주 수요일(오후 7시), 토요일(오후 2시) 두차례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했던 '위대한 유산'을 상영한다.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던 '위대한 유산'은 가난한 고아였던 주인공 핏이 아름다운 이웃 소녀 에스텔라에게 마

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계층에 대한 해학과 풍자,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이번 공연 실황은 지난 2013년 웨스트엔드 보드빌 극장에서 공연된 라이브 실황으로 스코틀랜드 국립극장 부감독 그라함 맥라렌의 독창적인 작품해석이 인상적이다. 티켓 가격 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